

국정원 국조 사실상 마무리... 여야 대치는 계속

민주 '김·세 증인 채택 의혹 규명'... 특검카드 만지작

새누리 "결산국회 단독소집 불사"... 오늘 청문회 불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야간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산국회의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민주당의 장외 투쟁 철학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결산국회에 응해야 하고 곧 정기국회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장

외투쟁을 이어갈 힘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권에서 원내 복귀를 위한 아무런 명분도 주지 않고 있어 정치 부재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0일 국정원 국조 1~2차 청문회에서 야당의 주장이 어느 것 하나 사실로 판명된 것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소모적인 국조 정국을 마무리하고 결산국회로 넘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대선 불복', '사법질서 무시'라고 강

도 높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특검 카드를 거론하며 계속 장외 투쟁을 할 경우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천막을 접고 결산심사장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야당이 계속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단독국회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재야단체와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서 "국정조사장에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밀줄까지 치며 최고라고 칭송했던 것이 검찰 공소장인데 특검이 아니라 생뚱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국정원 댓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대외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로 '김·세'(김무성·권영세)의 증인채택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들이 없다면 국조는 커다란 구멍을 낸 가운데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릴레이 촛불집회를 고리로 '광장'에서 대외공세를 극대화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조 이후에 국정원 이슈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세'가 연루된 의혹을 추가로 규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조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국조는 문제해결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누리당의 감싸기로 '김·세'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안된 만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21일로 예정된 국정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태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백종철씨가 보내온 불출석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증인이 없어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청문회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 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증인도, 진실도 없었다”

증인 출석 강기정 의원 국정원 국조 소회

지난 19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현역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0일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 국정조사에 없었던 5가지와 있었던 4가지(5無4有)"를 꼽았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증인이 없었고(김무성·권영세), 증인선서가 없었고(원세훈·김용판), 얼굴이 없었고(가림막 뒤로 숨어버린 김하영·박원동·민병주), 결국 진실이 없었고,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국정조사가 되고 말았다"며 "반면, 범죄를 두둔하는 국회의



원이 있었고 이 속에서도 진실의 힘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고 분노에 찬 국민의 촛불이 있었고 끝내 진실을 밝혀낼 민주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유린에 대한 조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진실 찾기를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00일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해소 차질

주승용 의원 "국고보조금 50억 삭감 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던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2014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5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삭감됐으며 재심의한 결과에서도 예초 보다 50억 원이 삭감된 450억 원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출범 당시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조 812억 원의 부채를 쉽게



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억원, 2017년에는 300억원 등 6년간 국고보조금 2800억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다.

또한, 먼저 출범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부채 원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낳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상반기 전기요금 체납 전국 최고

이낙연 의원 한전 자료 분석

올 상반기 광주·전남 전기요금 체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0일 한전이 최근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 체납 전기요금은 1073억3000만원이며, 이 중 광주·전남이 279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해 말 부도처리된 여수



국가산업단지 한곡실리온 체납액 200억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은 ▲대구·경북 116억7000만원 ▲부산·경남 112억원 ▲경기 103억2000만원 ▲대전·충남 90억2000만원 ▲인천 84억9000만원 ▲서울 61억3000만원 ▲전북 53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與 '손가위' 출범... 민생정책 시동

〈손톱밀 기사쟁이 특위〉

새누리당은 20일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손톱 밀 기사쟁이' 특별위원회(손가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당 정책위가 지난 7~8월 동안 20여 차례의 민생현장탐방에서 청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영화 '가위손'을 거론하며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정을 조각해 기쁨을 줬듯이 특위가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제시해줄 것을 기

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탁상행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참으로 아프게 느껴지는 가시를 찾아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녹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위원회는 회의만 하고 끝난다는 인식이 있는데 '손가위'는 현장 중심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발굴해 손톱 밀 기사를 찾고 국회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을지로쫄' 출범 100일 성과

'乙의 대변자' 자리 구축 자평

현장방문 35회, 교섭중재·타결 7건 등 경제민주화 역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0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감을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을(乙) 지키기'를 목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벌여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을 지키는 길, 100일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은수미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100일 평가와 전망' 발제를 통해 "그동안 35회 이상의 현장방문, 11회의 사례발표, 34회의 기자회견, 54건 이상의 법률상담, 7건의 교섭중재와 타결, 4건의 입법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김한길 대표는 위원회 100일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로 고통받는 을(乙)뿐 아니라 인간 존엄을 훼손당하는 많은 '을'을 살리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

다"며 "경제민주화를 넘어 사회민주화, 문화민주화로 나아가길 때 진정한 을을 위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경제영역에서 비전도, 계획도, 실행능력도 없는 '3무(三無) 정부'"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